

내년 어르신 일자리 2만8240개 마련

공익활동·사회서비스·시장형 등 광주시 12~23일 참여자 모집

광주시가 3만개에 육박하는 어르신 일자리를 확보하고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광주시는 "12일부터 23일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 2만82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23년 노인일자리아사업에 10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5개 자치구와 5개 시니어클럽 등 59개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노인일자리아 사업 축소 방침으로 2580여 명의 모집인원을 감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광주시는 자체 지방비 86억원을 추가 부담해 올해 수준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모집 인원은 ▲노노케어 등 공익형 사업 2만 2806명 ▲보육시설보호 등 사회서비스형 사업 2386명 ▲매장운영 등 시장형 사업 1961명 ▲민간업체 취업알선형 사업 1087명이다.

특히 내년에는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에서 신규 사업이 늘어나고, 참여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는 서비스도 많아진다.

모집 대상은 공익형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일부만 60세 이상),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 광주시 거주 어르신 등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다른 부처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12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본,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각 노인일자리아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노인일자리아

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익활동 참여자는 월 30시간(일일 3시간 이내) 활동하고, 활동비 27만원을 지급받는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근무에 71만원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시장형·취업알선형 사업 참여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가 별도 책정된다.

참여자는 소득수준과 활동역량, 경력 등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하며, 접수 기관에서 내년 1월 6일까지 개별 통보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노인일자리아사업은 어르신의 소득증대와 활기찬 노후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내년에도 올해 규모를 유지했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온 어르신들의 보람 있고 든든한 노후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청년지원 4개 사업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

광주시는 "청년지원 민간위탁 4개 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수탁기관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대상 사업은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청년교통수당 드림 ▲청년13(일+살)통장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 등이다. 선정 기관·단체는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사업 관리와 운영을 맡는다.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사업은 지역 미취업 청년 1400명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 250만원과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교통수당 드림' 사업은 3억 6000만원을 들여 구직 청년 1000명에게 교통비 3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13(일+살)통장' 사업은 월 10만원씩 10개월간 저축하며 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에게 1대 1 매칭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5000만원을 들여 6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 사업은 채무보유 청년 200명에게 연체예방지원금 100만원과 채무상담, 금융 교육 등을 제공하며, 2023년도 사업비는 4억600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광주에 있어야 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의 각 사업별 해당 분야 위탁 사무 수행 경험이 있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참가 신청서는 오는 20일 시청 청년정책관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사업자 선정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119특수구조단 청사에서 전기자동차 사고 대응 인명구조 훈련을 했다.

광주소방, 공동주택·노인시설 소방안전대책

피난시설 활용법·소방안전교육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대형화재에 대비해 2023년 2월까지 공동주택과 노인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겨울철에 관계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홍보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전 대책은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피난시설 활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 교육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겨울철 화재예방 교육영상 배포 등이다.

또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공동주택 화재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홍보전단지 배부, 겨울철 화재 예방 안내방송 송출 등 캠페인을 한다.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노인 관련시설은 의료진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피난구조설비 사용법과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방안전본부 이남수 방호예방과장은 "겨울철 화재는 자칫하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시민이 안심하며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민관협치 꽃 피우다

민관협치 워크숍 개최

협의회·9개 분과위원회 소통

광주시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민관협치를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와 협의를 통한 자치역량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2022 광주시 민관협치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민관협치협의회 출범 이후 첫 통합 워크숍으로, 민관협치협의회 위원인 안평환 광주시의원을 비롯한 민관협치 운영위원장인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 손옥수 광주시 복지정책과장, 흥동석 광주시 시민참여비서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관·정이 함께 걸어온 길을 들여다보고 2022년 민관협치 운영을 평가하고 2023년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동북담고갈 위기에 따른 '별시민 물 절약 실천 캠페인 동참'과 관련된 활동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공동의장인 류한호 전 (사)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은 민관협치협의회에서 제안했던 '전남·일신방직 부지활용에 대한 시민의견수렴 방안' 진행 과정을 보고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전남·일신방직 부지활용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방안으로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시 민관협치협의회에서 외부 전문가 1명을 추천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시민에게 공유할 것을 광주시에 제안한 바 있다.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는 '광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라 협의회 48명, 9개 분과위원회 204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광주시가 공동으로 협력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한다.

올해는 협의회 2회, 운영위원회 3회, 분과위원회 67회 회의를 진행하고 지역 내 공공 갈등 사전 예방을 위해 안전 37건을 제안했으며, 민관 협치를 통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창업기업 투자 '기술지주 뉴딜펀드' 결성

GIST-전남대-조선대 참여

광주지역 창업기업을 돕는 기술지주 뉴딜펀드가 결성됐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주연합기술지주, 전남대학교기술지주, 광주테크노파크, 조선대학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스타트업(G-Startup) 기술지주 뉴딜펀드' 결성 총회가 열렸다. 이번 뉴딜펀드는 한국모태펀드 2차 정식 출자사업에서 최종 선정됐다.

광주시는 6억원을 펀드 투자금으로 출자했으며, 모태펀드 출자금에 16억원을 포함해 총 31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60% 이상을 창업 3년 이내의 광주시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 조성에 참여한 출자기관은 ▲업무집행조합원인 광주연합기술지주 및 전남대학교기술지주 ▲유한책임조합원인광주시(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특별조합원인 한국모태펀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광주연합기술지주를 통해 출자한다.

이로써 광주연합기술지주는 빛가람대학창업펀드와 지스타트업대학창업뉴딜펀드 포함 총 111억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게 돼 지역창업 기업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광주시는 이번 펀드를 통해 기술기반 초기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해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광주연합기술지주 김요수 대표이사는 "기술기반의 광주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 광주지역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기술지주펀드를 지원하고, 맞춤형 경영지원을 강화해 지역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